

브라질, 11월 소비자 물가지수(IPCA) 0.51% 상승

('14. 12. 9)

상파울루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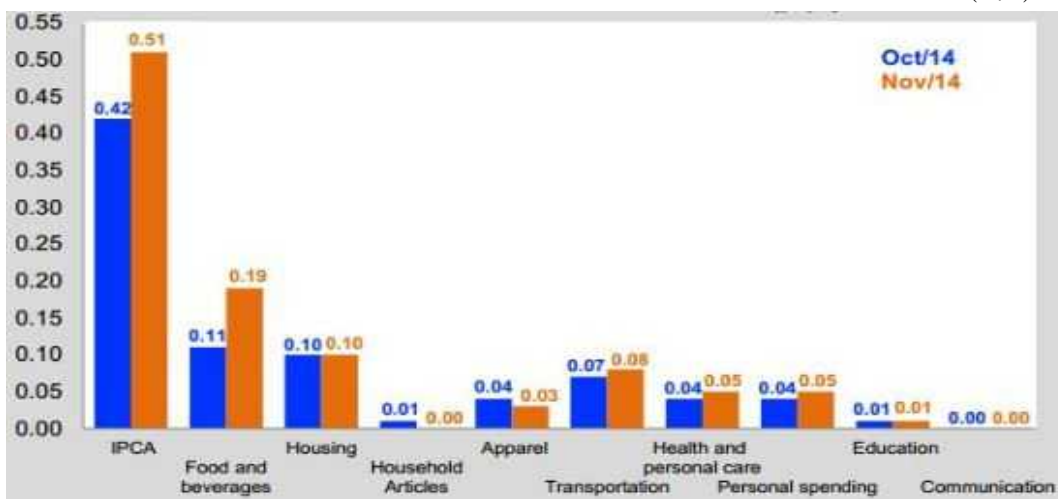
- 11월(10.29 ~ 11.27) 중 소비자물가지수인 IPCA*는 전월 대비 0.51% 상승하여 11월 기준 연간 소비자물가는 6.56%를 기록
 - 이는 10월(9.30 ~ 10.28) 중 상승률 0.42%보다 높지만 시장 예상치인 0.54%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

* **IPCA(Indice Nacional de Preços ao Consumodore Ampilo)** : 브라질지리통계연구원(IBGE)이 '8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로서 São Paulo, Rio de Janeiro, Brasilia 등 13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저임금 1~40까지 구간의 평균소득가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.

- 각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 0.19%, 주택 0.1%, 교통이 0.08 상승하였고, 소고기, 과일, 콩류 등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품 관련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.
 - 식료품에 이어 지난달 초 가솔린과 디젤가격 인상에 따른 전기료, 연료비 등의 상승폭이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

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(IPCA)

(P.P)



자료 : 브라질지리통계연구원 (IBGE)

- 한편 코어인플레이션* 상승률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억제시책이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추정
 - 11월 중 코어인플레이션 평균치가 0.36%를 기록, 전월 10월 0.45% 보다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

* 코어인플레이션 :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을 제외한 채소·과실 등과 같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작황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, 가솔린·경유·등유·액화석유가스·도시가스 등과 같이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난 후에 산출하는 물가지수